

대기업 감산·장기 휴무 '직격탄' 하남산단 '엄동설한'

100여 협력업체 폐업·부분 가동 비상

민5천본으로 줄었다. 이로 인해 하남산단내 100여개 중소기업협력업체들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

삼성광주전자 협력업체 K사 대표는 "25일부터 생산라인을 일시 중단했다"면서 "30여명에 달하는 직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월급을 내년에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기아차 광주공장 협력업체 H사 관계자는 "납품물량이 줄어들어 이달 중순부터 이미 공장가동률을 40%로 낮췄다"면서 "30여명의 유

휴인력을 고용유지조치했으나, 조만간 50여명으로 늘려야할 것 같다"고 걱정했다.

하남산단 관리공단 관계자는 "대기업 협력업체 뿐 아니라 다른 제조업체들도 자금난에 시달려 올해 상반기까지 80%대에 육박하던 산단 전체 공장가동률이 60%대 중반까지 떨어졌다"면서 "산단이 들어선 지난 84년 이후 올해처럼 막대한 모순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하남산단내에서 부도업체와 고용유지조치에 들어간 업체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7개 업체에 불과하던 부도업체수는 올해 3·4분기까지 9개로 늘었고, 10·11월에만 5개 업체가 문을 닫았다. 삼성광주전자 협력업체들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까지 부도업체수는 30여개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고용유지조치에 들어간 업체도 올해 상반기까지 19개에 불과했으나, 미국발 금융위기 조짐이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 7월부터 11월24일까지 108개로 크게 늘었다. 이 숫자는 이달 중순 120여개로 급증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스페인산 진주 목걸이 광주신세계 백화점 2층 모 네매장은 25일 '마조리카' 산 진주로 만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액세서리를 선보였다. 마조리카란 스페인의 섬 이름으로 스페인에서 직수입해 판매하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백화점 새해 첫 정기세일

광주신세계·롯데·현대 등 2일부터 18일까지

백화점들이 새해 벽두부터 정기세일에 들어간다.

25일 광주지역 백화점업계에 따르면 광주신세계, 롯데 광주점, 현대 광주점이 다음달 2일부터 18일까지 17일간 겨울 정기세일을 실시한다.

백화점들은 부진했던 겨울의 류 매출 실적을 만회하고 겨울 상품 재고를 털어내기 위해 예년에 비해 많은 물량을 세일 상품으로 준비했다.

광주신세계는 26일부터 시작되는 '브랜드 세일'을 시작으로 다음달 2~18일 정기 바겐세일을 진행한다.

행사 기간에 남성, 여성 의류, 스포츠 및 잡화품목을 최고 30%까지 할인 판매하며, 각 장르별 바이어들이 인기상품을 뽑아 한

정판매하는 '바겐스타' 행사도 마련했다.

현대 광주점은 정기세일 기간 동안 브랜드 및 품목별로 10~50% 할인 판매한다.

상품군별 참여율은 여성정장 90%, 남성의류 86%, 잡화 85%로 전체적으로는 87% 가량이이다 이에 앞서 26일부터 31일까지 브랜드별로 할인행사에 들어가는 '브랜드세일'을 진행한다.

롯데 광주점 역시 26일부터 31일까지 '브랜드 세일'에 이어 새해들어 정기세일인 '프리미엄 세일'을 진행한다.

각 브랜드의 주요 할인율은 10~40% 수준으로, 작년 평균 할인율인 10~30%에 비해 할인율이 더 높아졌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삼성 1조원 성과급

광주전자 직원들도

기본급 75% 격려금

삼성광주전자 직원들이 지난 24일 기본급의 평균 75%에 해당하는 생산성 격려금(PI·Productive Incentive)을 받았다.

25일 삼성광주전자에 따르면 내수경기 진작 차원에서 매년 초에 지급해오던 PI를 보름 앞당겨 지급했다.

삼성광주전자를 비롯해 삼성그룹 전체에 지급된 액수는 장기성과급과 PI를 합쳐 9천500억원에 달한다.

PI는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계열사들의 성과를 평가해 A(월 기본급의 150%), B(기본급의 51~125%), C(기본급의 0~50%) 등급을 매겨 성과급을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다.

/이종태기자 jilee@

농협 조합장

"깨끗이 뽑자"

지역본부, 선거관리 강화

내년에 집중적으로 치러지는 광주·전남 지역 농협 조합장 선거관리가 강화된다.

농협전남지역본부와 농협광주지역본부는 '조합장 선거관리 사무국'을 본부에 설치하고 개혁차원에서 조합장 선거를 관리할 계획이다.

농협전남지역본부 관계자는 25일 "중앙회가 26일 선거관리 사무국을 설치한데 이어 전남본부도 올해 안에 사무국을 갖출 계획"이라며 "각 시·군지부도 선거 전담팀을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농협은 부정·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 부정선거 자율단속반 운영, 부정선거 적발 조합 제재방안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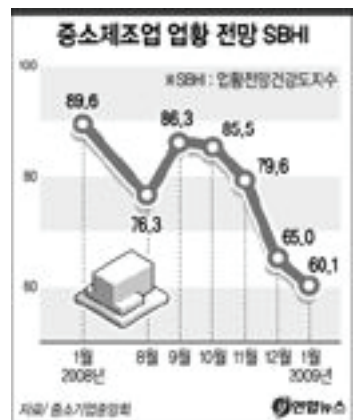
한편 전남지역에서 내년 조합장 선거를 치르는 단위조합은 전체 159개 가운데 3분의 1 정도인 53개에 달한다. 광주지역에서도 전체 14개 단위조합 중 광주농협·송정농협·북광주농협·서창농협·하남농협 등 5개 조합이 내년에 조합장 선거를 치른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중소기업인 체감경기도 '퐁퐁'

중기중앙회 1,400여곳 조사

SBHI 60.1 ... 사상 최저



중소기업인들의 체감경기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중소기업체 1천418개를 대상으로 내년 1월 경기전망을 조사한 결과 업황전망강도지수(SBHI)가 60.1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2002년 4월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12월 전망치 65.0에 이어 두달 연속 사상 최저치 경신 행진을 이어간 것이다. 올해 1월(89.6)과 비교하면 1년새 무려 29.5포인트나 떨어졌다.

기업경기실사지수(BSI)의 일종인 SBHI는 해당 기간 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내다본 업체가 긍정적 견해보다 많으면 100을 밑돌고, 지수가 낮을수록 부정적 전망이 강하다는 뜻이다.

경공업과 중화학공업 전망지수가 각각 한달 사이 2.1포인트(63.8→58.8), 7.2포인트(66.0→58.8) 떨어졌고 규모별로는 소기업(62.9→58.7)과 중기업(69.8→63.3) 모두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전체 20개 업종 가운데 15개 업종의 전망지수가 이달보다

낮았고, 특히 자동차부품(45.7), 목재·나무(45.3) 등은 50선마저 무너졌다. 이달 중소기업의 업황실적을 나타내는 지수 역시 11월보다 5.1포인트 낮은 58.6으로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12월 중 최대 경영여파로사환(중복 응답)으로는 '내수부진'(75.4%)을 꼽은 기업이 가장 많았고, '원자재가격 상승'(48.6%), '판매대금 회수지연'(40.5%), '자금조달 어려움'(39.2%) 등도 많이 거론됐다.

/연필뉴스

광주 떡산업 대규모 수출 기대

市, 美 대형마트 바이어 초청 홍보 활동

광주지역 떡산업이 해외마케팅 활동에서 성과를 거두면서 내년 대규모 수출이 기대를 모으고 있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월 광주 떡산업육성사업단 참여업체인 해오름 떡전문점이 지역 친환경 쌀로 생산한 흰인절미와 흑미영양떡 등 4.3t(1억2천500만원)을 미국 뉴욕에 수출했다.

4월에는 광주시 주관으로 미국과 캐나다 밴쿠버 등을 상대로 시장개척

활동을 열고 이달 미국현지 대형마트에서 유통 관련 바이어를 초청해 광주 떡 공동브랜드 '에담은' 홍보 및 시식행사를 열어 좋은 반응을 얻었다.

22일에는 광주시 떡산업육성사업단과 미국 버지니아주 소재 식품유통업체인 WELLBEING TRADING LLC(대표 이형남)과 '떡 판매촉진 상호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2008 노사상생협력대상'

보해양조 국무총리상



보해양조가 24일 '2008 노사상생협력대상 시상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왼쪽부터 황보옥 보해 노조위원장, 임현우 보해 부사장.

보해양조(대표이사 임근우)가 24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노동부 주관 '2008 노사상생협력대상 시상식'에서 노사협력유공자단체부문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보해는 지난 1978년 출범한 노동조합과 더불어 매년 분기별로 노사협의회를 개최해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 상생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했다.

지난 2000년 한국생산성본부가 선정한 노사협력대상'을 받기도 했다. 또 지난 2006년에는 보해 노동조합이 전라남도로부터 '제3회 전라남도 산업평화상' 금상을 수상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국제보청기' (International Hearing Aids). It features a large image of a hearing aid and the slogan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Use good hearing aids). The text promises that hearing loss will disappear. Contact information for the main office (062)227-9940 and branch office (062)227-9970 is provided.

Advertisement for '재수생 선명학습반' (Blind students' clear learning class). It lists various subjects like English, Korean, and computer. It includes photos of the instructor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center.